

## ‘영성·철학상담’ 전공으로의 초대 신학대학원 영성·철학상담전공 협동과정 신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철학전공 교수 박병준 신부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철학상담사 수련감독’이자 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철학상담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박사과정이 포함된 ‘영성·철학상담전공 협동과정’을 신설하고, 2022년 봄학기부터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상담은 ‘철학함을 통한 삶의 활력과 도약’이라는 모토로 1980년대 초에 독일, 네덜란드, 북미를 중심으로 시작된 철학실천운동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하여 날이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의 철학실천 학문입니다. 철학상담은 이론 및 실천 지식을 삶에 접목한 통합학문입니다. 현재 세계철학상담치료협회가 활발히 활동 중이며, 각국을 중심으로 철학상담치료협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에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가 발족되었고, 정식으로 ‘민간자격증’을 부여받아 학회 공인 ‘철학상담사’(수련감독, 전문가, 1급, 2급, 3급)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영성·철학상담전공 협동과정은 철학상담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학대학원의 특성을 살려 철학과 신학의 협업을 통해 영성 개념을 심화시켜 철학상담에 접목함으로써 철학상담의 학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영성은 감성과 이성과 함께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고유한 영역으로서 인간의 자기 존재와 자기 내면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사는 오늘의 현대인에게 영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영성·철학상담전공 협동과정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철학상담의 본질과 목표인 ‘삶으로서 철학함’의 기예를 이론과 실천의 통합 차원에서 습득하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과 삶에 관한 근본적 통찰을 통해 자기 이해 및 자기와 타인의 돌봄으로 나갈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성·철학상담전공 협동과정은 박사과정을 돕으로써 철학상담 학문 분야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나아가 철학상담사로서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과 교육 기관, 병원, 사목 현장,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 다양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성·철학상담전공 협동과정은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적 사유의 도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철학적 이해를 성장시켜 주며, 자율적인 자기 분석 능력을 계발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개인의 고유한 방식을 발달시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런 내적 존재 강화 훈련은 자기 치유뿐만 아니라 타인을 치유하고 돕는데 매우 유효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